

금년 5월초에 국방부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최근 유럽에서의 정치적인 변화와 동서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서도 40여년동안 군계획의 핵심인 나토의 존재가 급격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재편성한 나토와 유로연맹이 새로운 평화와 통일된 유럽의 균형을 유지시킬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토의 새로운 역할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5월에 국방부는 나쁜 소식을 들었다. 의회는 가까운 장래에 나토에게 미국이라는 효과적인 군사요소와 같은 쉬운 보장책을 제공할수 있는 예산을 체니 국방장관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금년도 국방부와 의회의 예산논쟁이 끝난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국방비에 대한 의회토론은 1991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인 9월말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회를 완전히 돌아서게 할 노력방법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표현할수 있을 것이다.

위협에 대한 평가와 예산문제

지난 4월말에 Les Aspin(민주당, Wisconsin州) 하원 군사위원회 의장과 Sam Nunn(민주당, Georgia주) 상원 군사위원회 의장은 체니 국방장관이 FY '91년 장비획득제안을 현재 평가되고 있는 소련의 위협수준에 맞추지 못한 대신에 2년 이상된 위협평가 수준에 맞추었다고 언급하였다.

결국 의회는 B-2 스텔스 폭격기 계획, C-17 수송기와 개량 전술전투기(ATF), 해군의 A-12와 항공모함 계획에서 상당한 예산 삭감이 적절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삭감으로 미국은 3백억불이상을 절약하여 연방예산 적자폭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의 재원을 바라보는 현실적 시각은 국방비 삭감에 대한 시도를 확실히 정당화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이유에 의한 군비삭감은

평화유지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들어 의회가 금년 소련의 위협에 대해 행하였던 조속한 조사방법은 소련의 능력보다는 소련의 의도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유럽에서의 소련의 행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련이 자국외부에 중점적으로 군을 배치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소련은 아직 군사력을 상당히 감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미국을 핵공격으로 초토화시킬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의회는 피상적인 방법으로 소련의 위협과는 다른 것을 조사하였다. 즉 지역분쟁과 소련이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 혹은 이라크의 후세인같은 지도자들이 서구를 고도기술무기 내지 화학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토에 대한 미래의 미국공약으로 허용된 품목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나토이외 지역에서의 부족한 소요로 인하여 사용이 무력화될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중요하지 않다.

겉보기에는 반대되는 의견같지만 금년에 의회가 제안한 모든 지출삭감이 뒤집혀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꺼림직하기는 하지만 의회가 제안한 삭감을 지원할수 있다. 그러나 C-17기의 삭감에 대해서만은 이것을 뒤집고 싶다. 왜냐하면 상당히 먼거리도 C-17기는 미래의 미군 공약으로 인식된 병력과 장비를 실어나를수 있다.

소련의 최근 변화와 관련하여 나토가 해군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때까지 다른 항공모함을 지원하고 있는 의회의 행동은 적절한 것이다. 대체로 미국 연방지출을 줄여야만 한다. 그러나 방위비에서의 많은 삭감은 위험성이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한 이런 모든 것에서 국방부와 나토에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는 감소될 美·蘇의 긴장과 그 결과로 생기는 군축이 반드시 군사기술의 흐름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회에 인식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B-2 스텔스 폭격기의 생산중단 내지 감축은 소련이외의 국가들에게 피아식별 장비와 B-52와 B-1 폭격기를 무력화시킬 능력을 보유한 지상·해상·공중 레이다와 방공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스텔스 폭격기가 없는 나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대적으로 20여개국 이상이 현재 F-5기를 배치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F-16기나 이와 동등한 기종의 전투기를 구매할 여유가 없는 반면에, 이들 국가들은 F-5기가 F-16기의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정밀장비로 개량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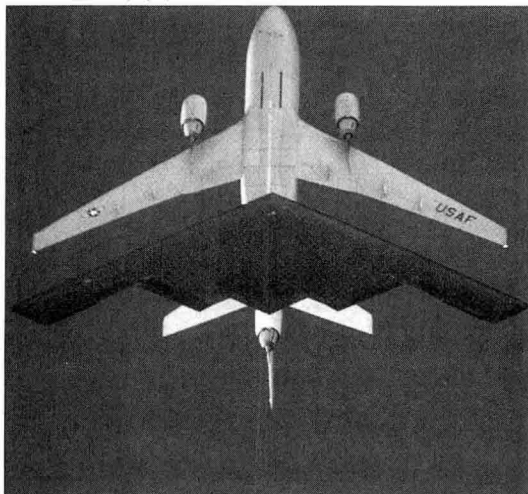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

완벽한 F-16기종에 대한 필수적인 전투특성을 F-16기보다 성능이 낮은 기종의 개량을 통하여 획득한다면, ATF기가 미 공군과 나토에 공군력의 우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인가?

POWELL 계획

연방적자를 줄이고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비를 삭감하는 의회와 의견이 일치한 Glayton L. Powell 美 합동참모총장은 국방부의 전략, 기술과 계획 및 현존의 무기체계와 병력수준을 새로운 세계의 정치현실과 위협의 변화, 미국과 동맹국 경제제한 상황에

KC-10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



일치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체니 국방장관과 부시 대통령의 고위 군사 고문이기도 한 Powell장군은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현재보다 병력의 3분의 1을 축소할수 있고, 의회가 권고한 액수보다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에 상당한 경비를 줄일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회와의 차이는 바로 국방부의 재검토가 금년도 의회의 결정을 주도하였던 경비절약이라는 조급한 정신보다는 국가와 동맹국 안보 보전에 더 큰 책임을 고려한 점이다.

Powell장군은 국방부 재검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될 향후 5개년의 미군의 위상을 계획하고 있다.

- 대서양 양대륙에 걸친 중/고 밀집투쟁을 제압하기 위한 중무장 부대
- 태평양지역 배치를 위한 輕軍
- 미국의 파나마 침공같은 경밀집투쟁(Low Intensity Conflict) 임무를 위한 신속배치군(Rapid Deployment Force)

이런 요구들이 향후 5년 이내에 협의되지 않는다면, 전략핵군(Strategic Nuclear Force)

이것은 현 국방부계획과 차이가 없다.

Powell 장군의 논의는 이런 유형의 군(軍)을 축소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가 하는 것처럼 급하게 혹은 제멋대로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Powell 장군은 현재의 상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조각가의 교묘한 솜씨처럼 세심하고 느리게 깎질을 벗기고 변경시킬 것이다.

다행스럽게 Powell장군의 계획은 현재의 국방예산의 급격한 축소추세를 늦출수 있고, 국방부의 재검토를 강요할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여유있고 적당한 미국의 평화유지요소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의원들의 호응을 얻을수 있다. (旭)

<Miltech 90/6>